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미래대학을 목표로 국내 사이버 대학교육을 선도해 온 고려사이버대가 개교 20주년을 맞았다. 고려사이버대는 특성화 학과 설치,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 멘토링 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특징점을 앞세워 '온라인대학 글로벌 톱10' 진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김진성 총장(가운데)과 학생들. 사진제공 | 고려사이버대



고려사이버대는 총 7개의 스튜디오를 갖추고 연간 150여 개의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HD영상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최첨단 스튜디오도 계동 캠퍼스에 갖췄다.

고등교육법 의거 4년제 정규대학 매년 150여개 '강의 콘텐츠' 개발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미래대학을 지향하며 국내 사이버 대학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고려사이버대가 개교 20주년을 맞았다.

고려사이버대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정규대학으로 고려대와 함께 고려중앙학원 소속 대학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배울 수 있는 사이버 교육의 특성에 힘입어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들이 관심 분야를 더 공부하기 위해 입학하는 사례가 계속 늘면서 평생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려사이버대는 현재 8개 학부(19개 학과, 5개 전공)와 대학원(융합정보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2001년 796명이던 재학생은 올해 10월 현재 9106명으로 11배로 증가했다. 학부 졸업 후 대학원 진학률도 늘어 최근 5년간 대학원 진학자가 1226명에 이른다.

고려사이버대 계동 캠퍼스에는 대학본부, 연구실, 스튜디오, 세미나실 등이 마련돼 연구, 강의, 세미나 등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계동캠퍼스와 고려대 안암캠퍼스 내에 7개의 스튜디오를 갖추고 연간 150여 개의 강의 콘텐츠를 개발한다. HD영상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계동캠퍼스의 264㎡(80평) 규모 스튜디오는 첨단 시설을 자랑한다. 김진성 고려사이버대 총장은 "앞으로 국내 대학도 온·오프라인을 함께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상호 교육 협력을 통해 일반대학의 학습시설과 사이버대학의 20년간 축적된 온라인교육 노하우를 결합해 미래 대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빅데이터·AI...특성화 리더 육성의 '넘버 원'

사이버대 최초 인공지능 전공 개설
다문화·보건행정 등 전문가 양성도
다양한 특성화 학과 융합전공 가능
저렴한 등록금·멘토링 지원도 장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언택트(untact) 시대를 넘어 온택트(ontact) 시대가 현실화하고 있다. 교육계에도 시대 흐름에 맞추어 교육체계의 혁신이 시작되고 있다.

2000년 개교한 고려사이버대는 온라인을 통한 고등교육으로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고 전문지식과 봉사정신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려사이버대는 온택트 시대에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코딩, 사이버 보안 교육 및 인문학을 아우르는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특성화 학과를 운영해 타 사이버대뿐만 아니라 일반대에도 차별화를 꾀했다. 또한 저렴한 등록금,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특징점을 갖춰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융합 교육의 메카'...특성화 학과들

미래학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는 핵심 기술을 다룬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신산업기술경영 등 3가지 전공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선택할 수 있어 학제 간 경계를 허문 융합형 교육이 가능하다. 빅데이터 전공에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현상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한다. 올해 국내 사이버대 최초로 신설된 인공지능 전공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한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관련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신산업기술경영전공에서는 기술 간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하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융합정보대학원(교육정보 전공, 경영정보 전공, 기술정보 전공)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현상을 연구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한다. 학부 전공에 제한 받지 않고 입학할 수 있으며 매월 화상으로 참석 가능한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학생들이 연구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융합전공은 소속 학과 외 전문 분야의 전공 학위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소프트웨어교육, 크리에이터, 코칭, 국방기술 분야 과목 30학점을 이수하면 전문성을 인정받아 해당 분야의 전공학위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고려사이버대는 과학기술 및 공학 분야의 교육을 확대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하고 있다. 2012년 선취업 후진학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된 후 국내 최초로 사이버대에 창의공학부가 개설됐다.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최신 교육과정과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실험실, 오프라인 실형 특강 등의 온·오프라인 학습 기회를 제공해 사이버대 공학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고려사이버대는 저렴한 학비는 물론 최저이수학점을 낮춰 학생들이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국어·다문화학부(한국어교육 전공, 다문화·국제협력 전공)는 한국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한국어 교육 전문가와 다문화사회·국제개발협력 분야 전문가를 양성한다. 학부에 개설된 교과목을 활용해 한국어교원 자격증과 다문화사회전문가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전공생들은 전세계 53개국에서 한국어 교원, 해외 봉사단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건행정학과는 미국 조지아사우스웨스턴주립대의 전문연구기관인 로잘린 카터 케어기빙연구소(RCI)와 협약을 맺고 돌봄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수 있는 '케어기빙(Caregiving) 전문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해 운영한다. 숙련된 돌봄 인력을 양성해 돌봄제공자의 정서적·육체적 소진을 예방하고 수혜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유일 돌봄 전공과 과정으로, 이수 후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유효한 케어기빙 교육수료증이 수여된다.

●최대 19% 저렴한 등록금과 학습전략 컨설팅

고려사이버대는 2001년 개교한 이래 고려대의 교육철학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어가며 협력 관계를 통해 강의의 질 제고 및 학생복지에 적극 나서 학생들을 지원한다.

고려사이버대 등록금은 학점당 6만5000원으로 다른 사이버대보다 최대 19%가량 저렴하다. 직장인, 산업체·군위탁 교육생, 다문화가정 이주인 등은 협약 내용에 따라 입학금 및 등록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산업체위탁교육 협약을 맺은 직장 재직자의 경우 최대 50%의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을 4년제 사이버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32학점으로 낮춰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습자에게 최적의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도 갖췄다. 전공별 현장 전문가 특강, 학문적 글쓰기 특강 등 필요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오프라인 특강을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한 'CUK ON'에서는 최태성 역사 강사, 김태원 구글코리아 상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지식을 공유한다.

재학생의 학습 효율을 높이고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전략 컨설팅을 제공하며,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 학습자들이 온라인 교육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멘토링 프로그램에는 매 학기 50~100명가량 참여한 재학생 멘토가 신·편입생 멘티의 온라인 학습을 돕고 있다.

정용문 기자 sadzoo@donga.com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흔들림없이 추진합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흔들림없이 추진합니다

YouTube '성경 경제부학' (1~10부) 시청 후 문의바람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반려동물 (개, 고양이) 까지 기본소득 150만원 지급 (선착순/가구당 1마리씩)

일자리도 없는데 대학가기 위해 **수능은 왜 보나?**
무식한 교육부야! 등신 학부모야! 철밥통 관료들야!
씩을 때로 씹어 줌비와 다름없는 정치인들야

이생망, 맹조선, 흠수저, 자살송을 퍼트리며 자살하는
- 1030세대 (39세까지) 알

문의처
세계교회 대학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등극!!!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강시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 서울 백인초 010-6462-6712 / 역삼 황비 010-5647-5428 / 김석우 청국장 010-7653-5373 / 이주자 010-9339-8649 / 신비전 010-9220-4334 / 김명배 010-8290-8801 / 강영희 010-3274-5289
●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백삼석 010-7309-1000 / 민명수 010-5118-5263 / 김현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우영남 010-4741-7008
● 조현교 010-7374-4111 / 서재운 010-8770-2935 ● 대전 김진구 010-8029-0059 / 김용환 010-3742-5998 / 전달민 010-2391-8259 ● 대구 전영희 010-4846-4950
● 울산 지영원 010-8003-5323 / 최혁수 010-4830-1810 ● 창원 이철배 010-3572-4616 / 이승현 010-5769-0532 ● 천안 김재덕 010-6258-3510 / 문명수 010-8904-3424
● 인천 박윤표 010-3227-0993 / 주안 용희표 010-6717-1779 / 서도원 010-3489-4190 / 김호중 010-8488-2999 ● 김포 정재호 010-6416-1888 ● 이천 박찬석 010-4707-2659
● 원주 권희원 010-5177-9479 ● 여주 삼근영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수원 원만도 010-3435-0158 / 박우영 010-5221-8119 / 김명대 010-8005-3616
● 경기 남부 황병도 010-6806-1931 / 노수필 010-5153-5983 ● 평강 고영철 010-5463-6952 ● 중국 충동우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화웨이 윤이나 010-8763-8742

하이우분투(주)
1644-6733